

#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독서문화프로그램 참여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articipation Statu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Reading Culture Programs for Public Library Users in Busan

신 영 지 (Youngji Shin)\*\*

이 은 주 (Eun-Ju Lee)\*\*\*

윤 유 라 (You-Ra Youn)\*\*\*\*

### < 목 차 >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설계와 방법

IV. 연구 결과  
V. 결론

**요약:** 본 연구는 지역의 도서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독서실태와 기존의 독서문화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개선점, 더불어 향후 희망하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의 유형과 방향성이 무엇인지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지역맞춤형 독서문화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응답자는 609명이다.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시사점을 도출하면, 첫째, 독서 활동의 정의가 전통적인 종이책을 넘어 다양한 디지털 매체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프로그램 개발 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독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시간적 여유 부족과 정보 부족이 나타난 만큼, 도서관과 관련 기관은 보다 유연한 시간대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통해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의 지속성과 다양성을 강화해야 하며, 넷째, 연령별 주제, 시간, 규모, 유형 등을 차별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이용자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개선 및 개발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독서실태 조사, 이용자 연구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ecur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locally customized reading culture programs by closely examining and analyzing the reading practices of local library users, their evaluation and improvement of existing reading culture programs, and the types and directions of reading culture programs they would like to see in the future.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users of public libraries in the Busan area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The survey was conducted online and offline, with 609 responde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implications can be drawn: First, the definition of reading activities is expanding beyond traditional paper books to various digital media, and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is change in future program development. Second, as lack of time and lack of information were identified as the main reasons for non-participation in reading activities, libraries and related organizations should offer programs at more flexible times and expand participation opportunities through effective promotion strategies. Third, the continuity and diversity of library reading culture programs should be strengthened, and fourth, they should be differentiated in terms of topics, time, size, and type by age group. Finally, programs should be improved through continuous user survey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is for improving and developing library reading culture programs in the future.

**KEYWORDS:** Public Library, Public Library Reading Culture Program, Reading Status Survey, User Research

\* 본 연구는 2024년 부산도서관의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개발 연구』의 내용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학술논문으로 발전시킨 것임.

\*\* 동의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yjishin@deu.ac.kr / ISNI 0000 0004 7936 7250) (제1저자)

\*\*\* 동의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ejulee@deu.ac.kr / ISNI 0000 0004 6335 8325) (공동저자)

\*\*\*\* 동의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yryoun@deu.ac.kr / ISNI 0000 0004 6098 1699) (교신저자)

• 논문접수: 2024년 8월 25일 • 최초심사: 2024년 9월 6일 • 게재확정: 2024년 9월 11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5(3), 285-312, 2024. <http://dx.doi.org/10.16981/kliss.55.3.202409.285>

© Copyright © 2024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I. 서론

최근 '미래 문해력(futures literacy)'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미래 문해력은 단순히 읽고 쓰는 능력을 넘어, 미래를 예측하고 상상하는 능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미래 문해력을 기른다는 것은 현재에 대한 분석적 인지활동과 미래에 대한 자유로운 상상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이야기한다(Larsen, Kæseler, & Miller, 2021). 이러한 포괄적인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다양한 역량들이 필요하겠지만 그중에서도 독서능력의 배양이 언급되고 있다. 독서는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 그리고 창의적 상상력을 길러주기 때문이다. 이처럼 독서는 미래의 핵심역량을 기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자 필수적 조건으로 그 중요성이 보다 더 강조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사회의 성인들은 독서를 온전히 즐기고 있으며, 독서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는 공평하게 획득하고 있는 것일까. 안타깝게도 여러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듯하다. 성인의 독서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격차 또한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3년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1년 간 교과서·학습참고서·수험서를 제외한 종이책, 전자책(웹소설 포함), 오디오 북 중 1개 이상 도서를 읽거나 들은 비율은 43.0%로 2021년 대비 4.5%로 감소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23). 문제는 이러한 독서율의 감소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라는 것에 있다. 2013년 72.2%였던 독서율은 매년 급감하여 2023년 43.0%가 되었다.

또한, 소득에 따른 독서 격차도 심각한 상황이다. 월평균 200만원이하 소득자의 독서율이 9.8%인데 반해, 월 평균 500만원이상 소득자의 독서율은 54.7%로 5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통계결과를 통해 단순히 소득격차에 의해 독서를 즐길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소득의 격차와 독서율의 차이는 그 선후관계에 대한 논의가 보다 필요한 사항일 것이다. 그러나 소득이 독서를 하는 시간과 비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해볼 여지는 충분히 존재한다.

이러한 짐작을 뒷받침하는 흥미로운 현상은 유료기반의 독서문화가 등장하고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유료 독서동아리 활동 플랫폼인 트레바리를 시작으로 유료 책대여 서비스인 밀리의 서재, 북클럽 활동, 북튜버, 북스타그램 등이 유행하면서 최근 단순히 읽는 독서를 넘어 즐기는 독서를 추구하고자 하는 리딩테이먼트(Readingtainment)가 부각되고 있다. 즉, 다소의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자신에게 맞춤형으로 보다 차별화된 독서문화를 즐기고자 하는 이들이 등장하는 등 독서문화의 쏠림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밀리의 서재에서 발행한 『2023년 독서트렌드리포트』를 살펴보면, 밀리의 서재를 이용하는 회원들의 월평균 독서량이 우리나라 국민의 월평균 독서량 0.8권보다 10배 가까운 많은 7.15권이라고 하였으며, 회원가입자 증가로 매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최우영, 2024).

이처럼 소수만이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독서문화가 형성되고 독서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서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의 소임과 도서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먼저, 국가적 정책으로 독서격차 해소를 위한 독서복지의 범위확장과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있다. 『독서문화진흥법』의 일부개정(2016년)을 통해 신체적 장애로 인해 독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독자를 지칭하는“독서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해 독서문화에서 소외되거나 독서자료 이용이 어려운 자를 포함하는 개념인 “독서소외인”을 사용하여 독서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독자층을 다양화하고 독서복지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24년 4월 발표된 『제4차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2024~2028)』에서는 비독자가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독서 가치 공유와 독자 외연 확대를 통해 모든 시민들이 책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24). 『제4차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에서도 사회적 독서문화 확산을 첫 번째 과제로 내세우고 있으며, 도서관에서 누구나 독서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즐길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뿐 아니라 맞춤형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다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국가도서관위원회, 2024).

이러한 정책에 기반을 두고 도서관에서는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독서문화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과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산지역에서도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들의 독서문화 향유를 위한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국도서관통계를 활용해 2023년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및 독서 관련 프로그램 개설 강자 수를 살펴본 결과, 전국 평균은 정기적 프로그램이 20.03개, 1회성 프로그램은 23.71개인 반면 부산지역 도서관은 정기적 프로그램이 20.83개, 1회성 프로그램이 34.68개인 것으로 나타나 부산지역이 전국을 상회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산지역의 평균독서량을 살펴보면, 전국평균 3.9권보다 다소 낮은 3.1권에 머물러 독서문화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내용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서관의 독서문화프로그램의 운영은 다른 서비스와 비교하여 제한된 예산에서 다양한 규모의 프로그램을 고안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서들의 창의력을 요구하여 새로운 업무 부담이 된다(박은자, 2004). 다양한 서비스업무를 하고 있는 도서관의 특성상 독서만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유료 사설 독서 플랫폼과 비교하여 고객의 성향과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하여 전반적인 변화를 도모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즉, 원점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점검해 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기에 기존의 도서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독서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난 후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되기를 희망하는지를 먼저 파악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의 도서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독서실태와 기존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개선점, 더불어 향후 희망하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의 유형과 방향성이 무엇인지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지역맞춤형 독서문화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공공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요구와 여가활동을 충족시키기 위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의 소통과 문화생활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강연과 공연, 전시회 등을 통해 도서관은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도서관 서비스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김관준, 2022; 이수상, 김수빈, 김나은, 2024). 더불어 사회적으로 독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 독서 양극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가속화됨에 따라 공공도서관은 이러한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적 독서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책임을 다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독서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정의와 범위는 다양하며, 도서관 현장과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독서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독서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독서문화프로그램을 「독서문화진흥법」의 “독서문화” 정의를 기반으로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이 구현되는 모든 프로그램으로 지칭하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독서 및 문화, 예술에 관한 모든 프로그램을 일컬어 독서문화프로그램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황금숙, 김수경, 박미영, 2008).

공공도서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은 실제로도 그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의 각종 서비스가 국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문화프로그램은 시민과 도서관을 연결하는 도구이며, 시민과 공공도서관의 상호작용을 통해 도서관 인식과 생활 만족에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논문들을 볼 수 있다. 이경란(2013)은 공공도서관 독서진흥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독서량이 증가하고 도서관 이용 빈도가 높으며, 프로그램 참여 이후 가족들과 책에 관한 대화가 더 많아지는 등 독서문화프로그램이 독서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차미경과 표순희(2008)는 공공도서관을 통해 지역 주민이 공동의 관심사로 만나는 프로그램은 건전한 지역사회 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서비스 중 하나이므로, 지역주민의 문화적 요구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은 이용자의 공공도서관 향유권을 높일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권나현(2015)은 Vakkari와 Serola(2012)의 성과측정지표에 근거하여 한국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성과를 평가하였는데, 공공도서관의 서비스를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높은 혜택이라 인지하는 비율이 도서관 선진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응답자의 약 2/3 정도가 소셜 및 비소셜류 독서, 교육 및 학습 기회 제공, 여가 중 자기 개발 측면에 대해 혜택을 강하게 느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미옥과 김기영(2022)의 연구에서는 중

장년층이 공공도서관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도서관 이용과 인식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즉,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난 뒤 경험하는 긍정적 만족감은 개인적 욕구 실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이는 개인의 일상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문화프로그램에 할애하는 시간과 비용, 참여하는 종류가 다양할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았으며, 지역의 여타 기관과의 경쟁이 아닌 연계와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 중 하나로 문화프로그램이 존재함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공공도서관이 지속적으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 효과성도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서격차는 여전히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2. 이용자 수요 분석

최근 공공도서관에 대한 이용자 조사 연구는 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 검토,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공동보존서고 건립 및 운영, 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용자 요구 조사는 도서관 서비스의 당위성 및 이용자 만족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특히, 도서관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도 이용자 수요 조사는 필수적이다.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이 이용자들의 실제 요구와 관심사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 프로그램 참여율이 저조해지고 도서관의 자원과 노력이 비효율적으로 소모될 위험이 있다. 이에 이용자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주제, 형식, 시간대, 규모 등을 이용자 요구에 맞추어 설계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참여도를 높이고 보다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수행된 공공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프로그램 유형 분석에 대한 연구(곽철완 외, 2009; 최상희, 2020; 황금숙, 김수경, 박미영, 2008)와 독서문화프로그램 현황조사 연구(심효정, 2023; 이종문, 2016; 한윤옥, 이연옥, 2008)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독서문화프로그램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이용자 조사(프로그램의 흥미도, 이해도, 만족도 등)를 통하여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기인영, 강순애, 2013). 그러나 공공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독서문화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춰 만족도 및 수요도를 조사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에서 인지 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이 유사기관의 문화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와 이용자 요구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적절한 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연구들도 다수 나타났다. 한상수(2010)는 충청남도 지역의 46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독서프로그램의 운영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이 지역 주민을 위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의 획일성

및 일회성 등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악하였다. 감미아와 이지연(2013)은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이 타 기관 프로그램과 주체가 중복되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 및 운용을 촉구하였다. 이경아와 김기영(2018)은 에코 세대 공공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문화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라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으며 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이 타 기관의 프로그램과 차별성이 없어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에 도서관 정체성이 결여된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 연구에서도 나타났는데 심호정(2024)은 문헌연구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데이터를 중심으로 공공도서관의 독서프로그램 현황을 분석하였는데,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이 많이 시행되고 있고 프로그램의 종류도 많기는 하나 도서관마다 비슷한 프로그램이 많이 편중되어 있고 일회성 프로그램의 비중이 높다는 문제점을 언급하였다.

이처럼 공공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현재의 공공도서관의 독서문화프로그램이 도서관의 정체성과 이용자가 희망하는 문화 향유의 방향성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 Ⅲ. 연구설계와 방법

#### 1. 설문 개발

설문지 문항은 2023년에 수행된 국민 독서실태 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23) 및 관련 선행연구(송민선 외, 2023; 정미옥, 김기영, 2022)에 나타난 주요 측정 항목들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하였다. 설문 내용은 크게 독서에 대한 인식 및 현황, 독서 활동,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참여 현황,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사항, 응답자 특성 등 5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세부적으로 3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표 1〉 참조).

〈표 1〉 설문 문항

영역	세부문항	질문형태
독서에 대한 인식 및 현황 (8문항)	독서의 범위	다지선다형
	독서 빈도	다지선다형
	독서 선호도	5점 리커트
	스스로 인식하는 본인의 독서량	5점 리커트
	독서의 유용성	5점 리커트
	독서 이유 및 계기	다지선다형
	독서 장애 요인	다지선다형
	독서하면 떠오르는 키워드	자유응답형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독서문화프로그램 참여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영역	세부문항	질문형태
독서 활동 (4문항)	독서 활동 참여 경험	다지선다형
	참여해 본 독서 활동	다지선다형
	독서 활동 참여 계기	다지선다형
	독서 활동 비참여 이유	다지선다형
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참여 현황 (6문항)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참여여부	다지선다형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참여목적	다지선다형
	참여한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유형	다지선다형
	참여한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중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	자유응답형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만족도	5점 리커트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비참여 이유	다지선다형
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사항 (9문항)	선호하는 프로그램 진행방식	다지선다형
	선호하는 프로그램 규모	다지선다형
	선호하는 프로그램 진행 유형	다지선다형
	선호하는 시기별 프로그램	다지선다형
	향후 원하는 독서 관련 활동 및 행사	다지선다형
	타 기관의 프로그램과 차별화되어야 하는 점	다지선다형
	독서문화프로그램 개발 시 중요한 점	5점 리커트
	향후 독서문화프로그램 홍보 방식	다지선다형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에 바라는 점	자유응답형
응답자 특성 (3문항)	성별	다지선다형
	연령	다지선다형
	거주지역	다지선다형
계		30

## 2. 데이터 수집과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부산 지역의 공공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부산도서관 홈페이지에 설문지를 게시하여 진행하였고, 오프라인 설문조사는 부산 전역의 이용자 의견 수렴을 위해 총 16개 행정단위인 구(군)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구(군)별 표본 공공도서관을 선정하여 총 6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도서관 선정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의 2022년 기준 통계를 기반으로 도서관 규모와 도서관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행정단위별로 1개관씩 1차 선정하였다. 그리고 규모가 큰 구(금정구, 북구, 해운대구)는 이용률이 높은 도서관 1개관씩을 추가선정하여 최종 19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오프라인 설문지는 600부 중 566부가, 온라인 설문지는 54부가 회수되어 총 620부가 회수되었다. 그 중 미답변 항목이 많은 불성실한 응답지 11개를 제외하여 최종 609부의 응답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표 2〉 참조).

〈표 2〉 설문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기간	2024.05.03. - 05.14.	
조사 지역 및 대상	부산 전 지역 (16개 구·군), 부산 지역 공공도서관 이용자	
설문조사 방법	오프라인	✓(도서관 선정) 총 19개 도서관 선정 → 16개 구(군)별로 장서규모,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1개관씩 선정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이용률이 높은 3개 도서관을 추가 선정함 ✓(배포 방식) 지역구별 인구수,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도서관별로 설문지 부수를 차등 배포함 ✓(설문조사 진행 방식) 각 도서관 안내데스크 및 도서관 프로그램 후 자발적 참여의사를 지닌 이용자들 대상으로 무작위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함
	온라인	✓ 부산도서관 홈페이지 게시
설문지 회수 현황	오프라인	✓ 600부 배포 566부 회수 (94.33%)
	온라인	✓ 54부 회수
최종 분석 대상	총 609부	

분석은 SPSS Statistics 26을 사용하였으며, 다지선다형 문항은 빈도분석을, 5점 리커트 문항은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요구조사 관련 문항은 연령에 따른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유응답형 문항은 작성된 응답을 정제 후 그룹화하여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인구통계학적 특징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은 다음 〈표 3〉과 같이, 성별은 남자 146명(24.09%), 여자 460명(75.91%)이고, 연령은 40대(25.82%), 20대(21.71%), 30대(18.26%), 50대(16.45%), 60대 이상(13.98%), 10대(3.78%)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는 해운대구(14%), 부산진구(10.71%), 금정구(9.88%), 남구(8.07%), 북구(7.91%), 기장군(6.92%), 연제구(6.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인구통계학적 특징

구분	N	%	구분	N	%	구분	N	%		
성별	남자	146	24.09	거주 지역	강서구	13	2.14	사상구	39	6.43
	여자	460	75.91		금정구	60	9.88	사하구	35	5.77
	계	606	100.00		기장군	42	6.92	서구	16	2.64
연령	10대	23	3.78		남구	49	8.07	수영구	27	4.45
	20대	132	21.71		동구	29	4.78	연제구	40	6.59
	30대	111	18.26		동래구	39	6.43	영도구	16	2.64
	40대	157	25.82		부산진구	65	10.71	중구	4	0.66
	50대	100	16.45		북구	48	7.91	해운대구	85	14.00
	60대 이상	85	13.98		계			계	607	
	계	608	100.00							

## 2. 독서에 대한 인식 및 현황

독서에 대한 인식 및 현황 영역에서는 ① 독서의 범위, ② 독서 빈도, ③ 독서 선호도, ④ 본인의 독서량 평가, ⑤ 독서의 유용성, ⑥ 독서 이유 및 계기, ⑦ 독서 장애 요인, ⑧ 독서하면 떠오르는 키워드 등 총 8개의 문항에 대해 조사·분석하였다.

먼저, 독서의 범위에 대한 분석 결과, 종이책 읽기(97.21%)가 가장 높았으며, 전자책 읽기(79.31%), 종이 신문 읽기(47.62%), 웹소설(인터넷소설) 읽기(46.47%), 오디오북 듣기(44.83%)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설문 응답자들이 종이형태(종이책, 신문, 만화, 잡지 등)의 자원은 물론 전자책, 웹소설, 오디오북까지도 독서의 범위로 본다는 것을 의미하며 독서매체를 매우 광범위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 참조).

〈표 4〉 독서의 범위 (복수응답)

구분	N	%	구분	N	%
종이책 읽기	592	97.21	오디오북 듣기	273	44.83
전자책 읽기	483	79.31	만화책 보기/읽기	242	39.74
웹소설(인터넷소설) 읽기	283	46.47	웹툰(인터넷 만화) 보기/읽기	113	18.56
챗북(채팅형식 콘텐츠) 읽기	64	10.51	인터넷 검색 정보 읽기	52	8.54
종이 신문 읽기	290	47.62	인터넷 블로그/카페 글 읽기	60	9.85
인터넷 신문 읽기	181	29.72	소셜미디어(SNS) 글 읽기	57	9.36
종이 잡지 읽기	233	38.26	문자 정보 읽기	81	13.30
웹진(인터넷 잡지) 읽기	119	19.54			

독서빈도와 관련해 최근 1년(2023.01.01.~2023.12.31) 동안 종이책, 전자책, 웹소설, 오디오북 등을 얼마나 자주 읽거나 들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일주일에 한두 번(30.1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다음으로 한 달에 한두 번(29%), 매일(24.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표 5〉 독서 빈도

구분	N	%
매일	146	24.05
일주일에 한두 번	183	30.15
한 달에 한두 번	176	29.00
몇 달에 한 번	88	14.50
전혀 이용 안함	14	2.31
계	607	100.00

독서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좋아한다는 긍정의 응답이 64.69%, 싫어한다는 부정의 응답이 5.25%로 나타나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책 읽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본인의

독서량이 충분한지 평가하게 한 결과, 매우 충분하다 혹은 충분하다는 긍정의 응답이 약 10%로 나타난 반면, 부족하다 혹은 매우 부족하다는 부정의 응답이 약 52%를 차지해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본인의 독서량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요컨대 설문 응답자들은 독서에 대한 선호도는 높은 반면 스스로 느끼는 독서량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6〉 참조).

〈표 6〉 독서 선호도 및 스스로 인식하는 본인의 독서량

구분	N	%	M	Std	구분	N	%	M	Std
매우 싫어한다	3	0.49	3.89	0.909	매우 부족하다	66	10.84	2.59	0.990
싫어한다	29	4.76			부족한 편이다	252	41.38		
보통이다	183	30.05			보통이다	181	29.72		
약간 좋아한다	210	34.48			충분한 편이다	86	14.12		
많이 좋아한다	184	30.21			매우 충분하다	24	3.94		
계	609	100.00			계	609	100.00		

독서의 유용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10개의 항목에서 모두 평균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풍부한 정서와 감성 발달'(4.3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문 지식의 습득'(4.34), '세상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 향상'(4.33), '정보 수용과 해석 능력 향상'(4.31) 등의 순으로 독서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있었다(〈표 7〉 참조).

〈표 7〉 독서의 유용성

구분	N	전혀 도움이 안된다		도움이 안된다		보통이다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M	Std
		N	%	N	%	N	%	N	%	N	%		
정보 수용과 해석 능력 향상	607	0	0.00	7	1.15	50	8.24	297	48.93	253	41.68	4.31	0.670
풍부한 정서와 감성 발달	605	0	0.00	5	0.83	49	8.10	275	45.45	276	45.62	4.36	0.665
논리적, 비판적 사고 기르기	605	0	0.00	8	1.32	72	11.90	273	45.12	252	41.65	4.27	0.718
전문 지식의 습득	604	1	0.17	8	1.32	58	9.60	255	42.22	282	46.69	4.34	0.719
행복감, 삶의 질 향상	602	0	0.00	11	1.83	97	16.11	256	42.52	238	39.53	4.20	0.769
창의력과 표현력 향상	603	0	0.00	4	0.66	80	13.27	272	45.11	247	40.96	4.26	0.707
원활한 의사소통	603	0	0.00	7	1.16	131	21.72	260	43.12	205	34.00	4.10	0.771
다른 사람과의 교감, 공감 능력 향상	603	0	0.00	11	1.82	105	17.41	275	45.61	212	35.16	4.14	0.761
마음의 평안과 심리적 치유	604	2	0.33	12	1.99	75	12.42	256	42.38	259	42.88	4.25	0.773
세상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 향상	605	0	0.00	9	1.49	61	10.08	259	42.81	276	45.62	4.33	0.715

독서를 하는 주된 이유 또는 계기에 대해 분석한 결과, '교양과 상식을 쌓으려고'(66.67%),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으려고'(66.50%),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으려고'(56.16%)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이러한 응답이 일(업무)이나 학업, 취업을 위해서 독서를 한다는 목적성 있는 독서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는 점이다. 응답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독서를

하고 있었지만 뚜렷한 목적을 가진 수단적 독서보다는 독서자체를 즐기고자 하는 거시적 목표를 우선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8〉 참조).

〈표 8〉 독서 이유 및 계기 (복수응답)

구분	N	%
일(업무)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189	31.03
학업과 취업을 위해서	149	24.47
교양과 상식을 쌓으려고	406	66.67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으려고	405	66.50
시간을 보내려고	181	29.72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으려고	342	56.16
책 읽는 것이 즐겁고 습관이 되어서	219	35.96
다른 사람과 대화를 잘하려고	80	13.14
자녀의 독서에 도움을 주려고	124	20.36
유튜브, SNS (페이스북, 트위터 등)를 보고	65	10.67
신문, 방송, 인터넷에서 책 소개를 보고	111	18.23
주변 사람이 권해서	55	9.03
취미 활동을 위해서	180	29.56
책을 선물로 받아서	45	7.39
기타	14	2.30

N: 609

독서를 어렵게 하는 장애 요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 책 이외에 매체/콘텐츠(스마트폰, TV 등)를 이용해서(50.84%)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책이 아닌 다른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는 응답자가 절반 가까이 존재하며 이것이 가장 큰 독서의 저해요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학생은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46.46%) 혹은 책 읽는 습관이 들지 않아서(22.39%), 책을 읽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19.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9〉 참조).

〈표 9〉 독서 장애 요인 (복수응답)

구분	N	%
일(학생은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276	46.46
책 이외에 매체/콘텐츠(스마트폰, TV 등)를 이용해서	302	50.84
여가/취미 활동(매체/콘텐츠 이용 제외)을 해서	81	13.64
책 읽는 것이 싫어서	25	4.21
책 읽는 습관이 들지 않아서	133	22.39
독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10	1.68
어떤 책을 읽을지 몰라서	46	7.74
책을 읽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27	4.55
몸이 불편하여 책 읽기가 어려워서	8	1.35
시력 저하 등으로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아서	88	14.81
책을 읽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114	19.19
책 구입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61	10.27
기타 (육아, 눈 피로, 장애 요인 없음 등)	13	2.19

N: 594

마지막으로 독서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를 조사한 결과, 총 1,387개 단어가 작성되었으며 정제 과정을 거쳐 363개의 단어가 도출되었다. 그 결과, '편안함/평안함/평온함'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행복, 지식, 여유/여유로움, 즐거움, 재미, 안정, 흥미, 힐링, 차분함 등의 단어가 도출되어 독서가 다양한 긍정적 어휘로 표현됨을 알 수 있다. 이는 독서가 단순히 정보와 지식의 전달을 넘어 개인의 정신적 안정, 행복, 성장을 위한 중요한 활동임을 의미한다(〈표 10〉 참조).

〈표 10〉 독서하면 떠오르는 키워드 (상위 40개)

구분	단어명	빈도	구분	단어명	빈도
1	편안함/평안함/평온함	108	21	고요	13
2	행복	50	22	정보	13
3	지식	49	23	휴식	13
4	여유/여유로움	48	24	풍부함/풍요로움	12
5	즐거움	46	25	기쁨	11
6	재미	40	26	마음	11
7	안정	34	27	조용함	10
8	흥미/흥미로움/흥미진진	29	28	몰입	9
9	힐링	29	29	설렘	9
10	차분함	23	30	성취감	9
11	뿌듯함	20	31	여행	9
12	감동	19	32	지루함	9
13	공감	18	33	지혜	9
14	교양	16	34	감성/감수성	8
15	마음의 양식	16	35	발전	8
16	성장	15	36	여가	8
17	지식함양	15	37	자기계발	8
18	만족감	14	38	충만감	8
19	위로	14	39	평화/평화로움	8
20	집중	14	40	도서관	8

### 3. 독서 활동

독서 활동 영역에서는 ① 평소 독서 활동 참여 여부, ② 참여해 본 독서 활동, ③ 독서 활동 참여 계기, ④ 비참여 이유, 총 4개의 문항을 조사·분석하였다.

먼저 독서 활동 참여 여부를 분석한 결과, 259명(42.53%)이 독서 관련 활동 및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50명(57.47%)이 참여한 적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참여자를 대상으로 참여해 본 독서 활동 유형을 분석한 결과, 독서행사(54.26%)와 독후활동(41.86%)에 대한 활동이 주된 참여활동으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이와 함께 독서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분석한 결과, '도서관, 관공서 등의 안내가 있어서'(49.22%)와 '스스로 정보를 찾아서'(45.70%)가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터넷, SNS 등에 정보나 권유가 있어서’(14.45%), ‘주변 사람의 권유로 알게 되어서’(14.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 참여해 본 독서 활동 (복수응답)

구분	N	%
독후 활동 (독후감 쓰기, 서평 쓰기, 독서 토론, SNS/블로그에 감상평 올리기 등)	108	41.86
독서 캠페인 (북스타트, 한도시 한책 읽기, 책 읽는 가족 등 지역의 독서 생활화 지원 프로그램)	50	19.38
독서 행사 (저자와의 만남, 책이나 독서를 주제로 한 각종 전시회 및 강연회, 세미나 등)	140	54.26
독서교육 (독서법, 독서지도자 양성 교육, 독서 논술 등의 교육 강좌)	50	19.38
독서치유/치료 (주로 문학작품을 읽으며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고 정신 건강을 도모하는 활동)	23	8.91
기타 활동 (위의 보기에 해당하지 않는 독서와 관련된 활동)	34	13.18

N: 258

반면,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결과, 참여하고 싶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40.18%)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지 못해서(36.07%), 참여할 만한 기회가 없어서(35.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2〉 참조). 이에 더해 기타의견으로 독서만으로 충분함, 혼자 읽는 게 좋음, 독서활동을 참여할 자신감이 없음, 공개적인 독서 활동이 아니어도 공유할 다른 기회들이 있음, 독서는 좋아하지만 그 외 독서 자체가 아닌 여타 행사에는 관심이 없음, 프로그램 조기 마감, 시간이 제한적이고 어린이/청소년 위주의 행사가 많음, 사는 지역과 거리가 멀어서 등이 나타났다.

〈표 12〉 독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복수응답)

구분	N	%
책 읽기에 관심이 없어서	32	9.38
참여할 만한 기회가 없어서	120	35.19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67	19.65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지 못해서	123	36.07
참여하고 싶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137	40.18
함께 참여할 사람이 없어서	26	7.62
기타	17	4.99

N: 341

#### 4.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참여 현황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참여 현황 영역에서는 ①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참여 여부, ②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참여 목적, ③ 참여한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유형, ④ 참여한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중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 ⑤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만족도, ⑥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비참여 이유, 총 6개의 문항을 조사·분석하였다.

먼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독서문화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분석한 결과, 참여한 적이 있다가 208명(34.21%), 참여한 적이 없다가 400명(65.79%)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참여자를 대상으로 독서문화프로그램 참여 목적을 분석한 결과, 교양과 지식을 넓히기 위해(75.36%)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37.20%), 취미활동을 신장하기 위해(31.88%), 책을 읽기 위해(30.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3〉 참조). 그 외 기타의견으로 아이와 함께 프로그램 참여하기 위함이 다수 나타났으며, 이와 함께 커뮤니티 형성, 독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등이 나타났다.

〈표 13〉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참여 목적 (복수응답)

구분	N	%
책을 읽기 위해	64	30.92
교양과 지식을 넓히기 위해	156	75.36
대인관계를 넓히기 위해	13	6.28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77	37.20
취미활동을 신장하기 위해	66	31.88
취업(부업)을 하기 위해	3	1.45
기타	12	5.80

N: 207

참여한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의 유형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이론 중심의 강의식 수업(52.68%)이 월등히 많았으며, 체험학습 등 참여 수업(27.80%)과 시청각 수업(20.49%), 동아리 위주 토의(18.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야외 활동을 기반한 수업이나 상담 및 개인지도 등은 참여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4〉 참조).

〈표 14〉 참여한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유형 (복수응답)

구분	N	%
이론 중심 강의식 수업	108	52.68
시청각 수업	42	20.49
체험학습 등 참여 수업	57	27.80
동아리 위주 토의	37	18.05
상담 및 개인지도	4	1.95
야외 활동을 기반한 수업	11	5.37
기타	14	6.83

N: 205

자유응답형으로 기억에 남는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156개의 응답이 있었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15>와 같다. 2023년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의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따르면, 현재 부산 공공도서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유형에서 독서 자체에 집중하는 프로그램 유형이 10%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부산도서관, 2024) 이용자들에게는 독서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기억이 많이 남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5> 기억에 남는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구분	N	응답 내용 (일부 발췌)
작가 초청/만남	39	작가초청강연, 작가와의 만남, 작가북콘서트, 작가북토크 등
독서 관련	19	가족간 독서릴레이, 그리스로마신화읽기, 그림책읽기, 논어읽기, 독서일기 가족, 독서캘린저, 독후감 쓰기, 야외독서감상하기, 일일독서교실
참여/체험	17	도마만들기, 구연동화, 드로잉 수업, 명화감상, 문학기행, 미술수업, 원예프로그램, 웹툰 만들기, 접지체험 및 정서발달 만들기 체험, 화분 만들기, 자녀와 함께하는 역사 탐방, 역사탐방기행
독서동아리/독서회	13	독서동아리, 독서토론동아리, 독서회, 번개 독서 동아리, 성인독서회, 소반독서회, 책꼬리 독서회, 프로젝트 독서모임
다양한 주제 강의	12	경제금융상식(평생학습), 맹자 강의, 미술이론 프로그램, 시 창작수업, 역사, 영화의 이해, 한국사 수업, 철학을 삼킨 평등, 타로수업
인문학 관련	10	길위의인문학, 인문학 강의, 책과 미디어로 읽는 인문학
독서토론	9	금쪽 같은 그림책 수다, 독서 토론 프로그램, 독서토론, 독서토론회
영어/외국어	8	쓸데없는 영어, 영어 그림책, 외국어 수업
심리	4	오행심리, 오행에 따른 자녀의 기질과 진로 탐색, 보행심리
독서치유/치료	3	독서치료, 독서치유, 독서마음치료
글쓰기	3	글쓰기 프로그램
부산 관련	3	부산학(부산도서관), 부산학관련 프로그램, 부산을 소개해 주는 프로그램
북스타트	3	북스타트
필사	3	고전필사 프로그램, 금요일사, 필사하기
공연	3	마술쇼, 오페라 관람, 아이들과 함께 하는 뮤지컬(풍선)
북피크닉	2	북피크닉 행사
원북원부산	2	원북원부산, 원북원부산 <이울림 한마당>
그 외	3	어린이날 행사, 아이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유명인 참여 문화프로그램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프로그램 지속성'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4.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그 중에서도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표 16> 참조). 반면, '지속성'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항목에 비해 다소 낮았다. 그 이유는 2023년 국가도서관통계에서 제공하는 독서문화프로그램 관련 지표에서 유추해볼 수 있었다.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의 독서문화프로그램은 1회성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즉,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 보다는 다양성을 확보하고 다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6〉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만족도

구분	N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M	Std
		N	%	N	%	N	%	N	%	N	%		
프로그램의 종류	207	1	0.48	5	2.42	23	11.11	113	54.59	65	31.40	4.14	0.740
프로그램의 내용	206	1	0.49	4	1.94	22	10.68	111	53.88	68	33.01	4.17	0.729
강사의 전문성	206	1	0.49	3	1.46	25	12.14	104	50.49	73	35.44	4.19	0.738
프로그램 운영 시간	205	2	0.98	1	0.49	26	12.68	115	56.10	61	29.76	4.13	0.719
프로그램 지속성	205	3	1.46	10	4.88	41	20.00	90	43.90	61	29.76	3.96	0.909

반면,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결과, ‘참여하고 싶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가 47.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지 못해서’ 33.50%, ‘참여할 만한 기회가 없어서’ 33.25%,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23.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7〉 참조). 기타 의견으로 혼자 읽는게 좋아서, 프로그램에 관심이 없음, 대상 프로그램이 없어서, 시간이 안 맞아서(직장인이 참여하기 힘든 평일 오전 수업 등), 조기마감 등이 나타났다.

〈표 17〉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복수응답)

구분	N	%
책 읽기에 관심이 없어서	28	7.11
참여할 만한 기회가 없어서	131	33.25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92	23.35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지 못해서	132	33.50
참여하고 싶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189	47.97
함께 참여할 사람이 없어서	29	7.36
기타	18	4.57

N: 394

### 5.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사항

해당 영역에서는 ① 선호하는 프로그램 진행방식, ② 선호하는 프로그램 규모, ③ 선호하는 프로그램 진행 유형, ④ 선호하는 시기별 프로그램, ⑤ 향후 원하는 독서 관련 활동 및 행사, ⑥ 타 기관의 프로그램과 차별화되어야 하는 점, ⑦ 독서문화프로그램 개발 시 중요한 점, ⑧ 향후 독서문화프로그램 홍보 방식, ⑨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에 대해 희망하는 점, 총 9개 문항을 조사·분석하였다. 공공도서관은 타 관중에 비해 이용 대상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면밀한 요구조사 분석을 위해 연령별 교차분석을 함께 진행하였다.

먼저, 선호하는 프로그램 진행방식에 대해 분석한 결과, '대면 방식'이 60.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혼합형(대면+비대면)' 30.20%, '비대면 방식' 11.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선호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연령이 동일하게 대면방식, 혼합형, 비대면 방식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다. 특히 50대와 60대 이상의 이용자는 대면 방식의 선호도가 매우 높는데, 이는 고령층이 비대면 방식에 익숙하지 않거나 대면 상호작용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30대와 40대에서는 혼합형 방식을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는데, 이는 이 연령대가 가정과 직장 등 다양한 책임을 균형 있게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연한 프로그램 진행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표 18〉 참조).

〈표 18〉 연령별 선호하는 프로그램 진행방식

구분	빈도분석		연령별 교차분석						
	N	%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대면 방식	364	60.07	N	11	74	67	91	66	55
			%	47.8%	56.5%	60.4%	58.0%	66.0%	66.3%
비대면 방식	69	11.39	N	7	25	7	13	8	8
			%	30.4%	19.1%	6.3%	8.3%	8.0%	9.6%
혼합형 (대면+비대면)	183	30.20	N	8	31	37	55	30	22
			%	34.8%	23.7%	33.3%	35.0%	30.0%	26.5%
기타	2	0.33	N	0	2	0	0	0	0
			%	0.0%	1.5%	0.0%	0.0%	0.0%	0.0%

선호하는 프로그램 규모에 대해 분석한 결과, 소규모(10명 이내)가 48.60%, 중규모(30명 이내) 42.81%, 대규모(30명 이상) 7.60%, 기타 1.98%로 나타나, 대부분 30명 이내의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연령별 선호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소규모와 중규모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그중에서도 30대와 40대는 소규모를, 10대와 60대 이상은 중규모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9〉 참조).

〈표 19〉 연령별 선호하는 프로그램 규모

구분	빈도분석		연령별 교차분석						
	N	%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소규모	294	48.60	N	9	60	57	86	48	33
			%	39.1%	45.5%	51.4%	54.8%	48.5%	40.2%
중규모	259	42.81	N	13	58	34	64	44	46
			%	56.5%	43.9%	30.6%	40.8%	44.4%	56.1%
대규모	46	7.60	N	1	13	17	6	7	2
			%	4.3%	9.8%	15.3%	3.8%	7.1%	2.4%
기타	12	1.98	N	1	1	3	3	2	2
			%	4.3%	0.8%	2.7%	1.9%	2.0%	2.4%

선호하는 프로그램 진행 유형에 대해 분석한 결과, 체험학습 등 참여 수업(40.83%)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이론 중심 강의식 수업(29.75%), 시청각 수업(24.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선호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10대부터 50대까지는 모두 참여 수업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은 강의식 수업에 대한 선호도가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을 선호하는 반면, 학생 및 청년, 청장년층(학부모 등)은 실제로 체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1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담 및 개인지도와 야외 활동을 기반한 수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표 20〉 참조).

〈표 20〉 연령별 선호하는 프로그램 진행 유형

구분	빈도분석		연령별 교차분석						
	N	%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이론 중심 강의식 수업	180	29.75	N	5	25	32	51	32	35
			%	21.7	18.9	28.8	32.5	32.3	42.7
시청각 수업	148	24.46	N	4	34	22	34	23	30
			%	17.4	25.8	19.8	21.7	23.2	36.6
체험학습 등 참여 수업	247	40.83	N	11	55	45	76	35	25
			%	47.8	41.7	40.5	48.4	35.4	30.5
동아리 위주 토의	111	18.35	N	4	23	23	28	22	11
			%	17.4	17.4	20.7	17.8	22.2	13.4
상담 및 개인지도	50	8.26	N	3	12	12	13	7	3
			%	13.0	9.1	10.8	8.3	7.1	3.7
야외 활동을 기반한 수업	49	8.10	N	4	8	8	14	10	5
			%	17.4	6.1	7.2	8.9	10.1	6.1
기타	6	0.99	N	0	2	2	1	1	0
			%	0.0	1.5	1.8	0.6	1.0	0.0

시기별 독서문화프로그램의 선호도를 분석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시기별 독서문화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로 독서 시작을 독려하는 프로그램(도서 선정, 동기부여 등), 독서 과정을 독려하는 프로그램(독서 공간 제공, 책을 읽는 프로그램 등), 독서 후 후속 활동을 위한 독려하는 프로그램(책 기반 체험, 책 기반 강좌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독서 후 후속 활동(42.74%)'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독서 과정(35.31%)', '독서 시작(26.24%)' 순으로 나타났다. 후속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이와 함께 독서 과정을 독려하는 프로그램, 독서 시작을 독려하는 프로그램 역시 선호도가 비슷하게 나타나, 각 시기별 독서문화프로그램이 단계별로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 선호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10대, 20대, 40대, 50대는 후속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30대는 독서과정과 후속활동을, 60대 이상은 독서시작과 독서과정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표 21〉 참조).

〈표 21〉 시기별 독서문화프로그램 선호도

구분	빈도분석		연령별 교차분석						
	N	%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독서시작	159	26.24	N	8	32	32	35	20	32
			%	34.8%	24.2%	28.8%	22.4%	20.2%	38.1%
독서과정	214	35.31	N	6	43	42	56	34	32
			%	26.1%	32.6%	37.8%	35.9%	34.3%	38.1%
독서 후 후속 활동	259	42.74	N	10	57	41	69	53	29
			%	43.5%	43.2%	36.9%	44.2%	53.5%	34.5%
기타	7	1.16	N	0	3	1	1	0	2
			%	0.0%	2.3%	0.9%	0.6%	0.0%	8

향후 선호하는 독서 관련 활동 및 행사 유형에 대해 분석한 결과, '독서 행사'가 45.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독서치유/치료' 29.04%, '독후 활동' 19.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선호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독서와 관련된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독서 행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특징적인 부분으로는 50대와 60대 이상은 독서 치유/치료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고령층이 독서를 통해 정신적 치유와 안정을 추구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10대의 경우 다른 연령에 비해 '독서 캠페인'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표 22〉 참조).

〈표 22〉 독서 관련 활동 및 행사 선호도

구분	빈도분석		연령별 교차분석						
	N	%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독후활동	119	19.64	N	7	26	26	20	20	19
			%	30.4%	19.8%	23.4%	12.8%	20.0%	22.6%
독서 캠페인	92	15.18	N	7	20	22	25	9	9
			%	30.4%	15.3%	19.8%	16.0%	9.0%	10.7%
독서 행사	273	45.05	N	13	55	54	81	41	29
			%	56.5%	42.0%	48.6%	51.9%	41.0%	34.5%
독서 교육	93	15.35	N	0	15	18	39	9	12
			%	0.0%	11.5%	16.2%	25.0%	9.0%	14.3%
독서 치유/치료	176	29.04	N	2	22	30	42	40	40
			%	8.7%	16.8%	27.0%	26.9%	40.0%	47.6%
기타 활동	24	3.96	N	1	7	1	7	3	5
			%	4.3%	5.3%	0.9%	4.5%	3.0%	6.0%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개발 시, 타 기관 프로그램과 어떤 차별점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 다양성'이 43.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육시설 및 강사진의 우수성' 25.86%, '도서관의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23.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3〉)

참조). 기타의견으로 다양한 이용 대상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주제, 다양한 참여 시간(각 대상에 적합한 시간), 프로그램 규모, 이용자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등이 나타났다.

〈표 23〉 타 기관 프로그램과의 차별점 (복수응답)

구분	N	%
프로그램의 다양성	262	43.16
도서관의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141	23.23
적합한 수강료 및 참여비	48	7.91
프로그램의 신뢰성	72	11.86
교육시설 및 강사진의 우수성	157	25.86
도서관이 가진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111	18.29
지역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63	10.38
기타	13	2.14

N: 607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개발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분석한 결과, 5개 항목 모두 평균 4.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 '프로그램의 내용'이 4.50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강사의 전문성' 4.43, '프로그램의 종류' 4.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4〉 참조).

〈표 24〉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개발 시 중요한 점

구분	N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M	Std
		N	%	N	%	N	%	N	%	N	%		
프로그램의 종류	597	1	0.17	7	1.17	52	8.71	287	48.07	250	41.88	4.30	0.690
프로그램의 내용	598	1	0.17	2	0.33	21	3.51	248	41.47	326	54.52	4.50	0.601
강사의 전문성	600	1	0.17	4	0.67	43	7.17	240	40.00	312	52.00	4.43	0.670
프로그램 운영 시간	596	0	0.00	14	2.35	87	14.60	302	50.67	193	32.38	4.13	0.740
프로그램 지속성	594	1	0.17	19	3.20	91	15.32	274	46.13	209	35.19	4.13	0.795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의 홍보 방안에 대해 분석한 결과, '도서관 홈페이지 공지'가 70.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SNS 57.83%, 거리 게시판, 현수막 등 38.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5〉 참조). 기타의견으로 홍보문자(SMS, 카카오톡 등)에 대한 의견이 다수 나타났으며, 초/중/고/대학교 홍보, 구청 홈페이지, 홍보기념품 배포 등이 나타났다. 특히, 앞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라서 참여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타나, 향후 프로그램 홍보 방법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 선호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20대와 30대는 SNS(인스타, 트위터 등)를 활용한 홍보방안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나머지 연령은 모두 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5〉 홍보방안 선호도

구분	빈도분석		연령별 교차분석						
	N	%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도서관 홈페이지 공지	424	70.67	N	17	72	67	127	72	69
			%	73.9%	55.0%	60.9%	81.9%	74.2%	82.1%
SNS (인스타, 트위터 등)	347	57.83	N	12	100	87	85	42	21
			%	52.2%	76.3%	79.1%	54.8%	43.3%	25.0%
유튜브	130	21.67	N	4	40	28	29	13	16
			%	17.4%	30.5%	25.5%	18.7%	13.4%	19.0%
서포터즈	60	10.00	N	0	22	16	9	10	3
			%	0.0%	16.8%	14.5%	5.8%	10.3%	3.6%
TV, 라디오, 신문 등	71	11.83	N	2	18	11	12	12	16
			%	8.7%	13.7%	10.0%	7.7%	12.4%	19.0%
거리 게시판, 현수막 등	233	38.83	N	14	63	41	48	39	28
			%	60.9%	48.1%	37.3%	31.0%	40.2%	33.3%
홍보 팸플릿 배포	127	21.17	N	5	29	23	36	18	16
			%	21.7%	22.1%	20.9%	23.2%	18.6%	19.0%
기타	14	2.33	N	0	4	2	5	3	0
			%	0.0%	3.1%	1.8%	3.2%	3.1%	0.0%

추가적으로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에 바라는 점(기타의견)을 서술형 방식으로 질문한 결과, 총 271개의 의견이 작성되었다. 이를 분석, 정제 및 그룹화하여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 주제 및 유형의 다양화, 프로그램 타겟 대상의 다양화, 프로그램 운영시간의 다양화 및 유연화, 적극적으로 다양한 홍보방식의 적용,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표 26〉 참조).

〈표 26〉 기타의견 (서술형)

구분	빈도	세부내용
프로그램 주제 및 유형	1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서문화프로그램 <b>주제 및 유형의 다양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프로그램 대상(성별, 연령, 등)에게 적합한 주제</li> <li>→ 읽고, 쓰고, 토론하며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li> <li>→ 새로운 지식 분야(AI, Chat gpt 등)에 대한 프로그램 (관련 도서와 함께)</li> <li>→ 실질적인 독서법, 독서장려, 자료정리법</li> <li>→ 독서치료/독서치유 관련 프로그램</li> <li>→ 저자와의 만남 프로그램 확대</li> <li>→ 인문학 관련 프로그램 (길위의 인문학 등)</li> <li>→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li> <li>→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li> </ul> </li> <li>✓ (연계) 지역 도서관 연계형 프로그램, 지역 연계 체험프로그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서 연계 체험프로그램 (관련 현장 방문 여행)</li> <li>→ 지역 관련, 지역 역사문화 관련 체험 프로그램</li> </ul> </li> <li>✓ (특화) 도서관별 특화프로그램</li> <li>✓ (참여형) 이용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 나누는 활동 등 (책 나눔 등)</li> <li>✓ 도서관 활동을 통한 <b>직접 책 발간하기</b></li> <li>✓ (후속활동 독려) 프로그램 참여 후 개별적으로 후속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관련 자료 배부</li> <li>✓ 가볍게 시작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 부담 없이 시작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 대중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프로그램</li> </ul>

구분	빈도	세부내용
프로그램 대상	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연령층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 성인, 직장인, 주부, 중장년층, 노인 등</li> <li>✓ 참여자의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간대의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li> <li>✓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li> </ul>
프로그램 운영시간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운영 시간의 다양화/유연화 → 평일 오전, 평일 오후, 평일 야간, 주말 등</li> <li>✓ 참여 대상에 따른 적합한 시간 고려 필요 → 직장인의 경우 평일 야간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도가 높음</li> <li>→ 주부를 위한 오전 프로그램 운영</li> <li>→ 청년층 참여가 어려운 시간에 운영</li> <li>→ 어린 자녀가 있을 시, 주말이나 오후 프로그램 참여 불가 등</li> <li>✓ 요일별 프로그램 분산화</li> <li>✓ 프로그램 운영 횟수 확대</li> </ul>
프로그램 홍보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MS 홍보 (문자, 카카오톡 등)</li> <li>✓ SNS 홍보 (인스타 등)</li> <li>✓ 연도별 전체 프로그램 계획표</li> <li>✓ 최대한 많이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홍보 → 도서관 내부/외부에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필요 (팝플렛, 플랜카드 등)</li> <li>✓ 대상별 홍보방법의 차별화 → 중장년층, 노년층은 최신 홍보 방법에 익숙하지 않음 (신청 할 수 없음)</li> <li>→ 가족단위 홍보</li> <li>✓ 지역 학교와 연계한 홍보 → 대학생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대학교에 홍보</li> </ul>
프로그램 지속성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운영 (1기, 2기 등)</li> <li>✓ 단계별 커리큘럼을 가진 장기 프로그램 운영 (초급, 중급, 고급 등)</li> <li>✓ 전문성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속적인 프로그램</li> <li>✓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장기 프로그램</li> </ul>

## 6. 조사결과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서에 대한 인식과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독서에 대한 활동 범위가 종이책뿐만 아니라 전자책, 오디오북, 웹소설 등도 독서 활동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이는 디지털 매체의 확산에 따라 독서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독서를 좋아하지만 그에 비해 실제 독서량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독서의 유용성에 정서발달, 지식습득, 통찰력, 정보 수용 및 해석 능력 등 제시한 10가지 항목 모두를 유용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독서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는 대부분 다른 매체에 대한 선호도와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 습관이 들지 않은 것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구체적인 독서활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2.53%가 독서 관련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독서 행사와 독후 활동에 대한 참여율이 높았으며, 도서관이나 관공서의 안내와 개인의 자발적인 정보 탐색이 주요 참여 계기로 나타났다. 그러나 독서 활동에 참여하

지 않은 응답자들 중 상당수가 시간적 여유 부족과 프로그램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여 참여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도서관에서는 시간적 제약을 해결할 수 있는 유연한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홍보 전략이 요구된다.

셋째,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참여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목적은 주로 교양과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였으며, 프로그램의 종류와 강사의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으나, 프로그램의 지속성에 만족도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는 프로그램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독서의 지속적인 습관 형성이나 깊이 있는 독서 활동을 위한 장기적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속적인 학습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장기적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독서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사항을 조사한 결과 대면 방식의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며, 프로그램 규모는 소규모 또는 중규모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체험학습 등 참여형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프로그램의 진행 시기별로는 독서 후 후속 활동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으며, 독서 행사를 포함한 다양한 독서 관련 활동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독서 경험을 넘어, 독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상호작용과 체험적 활동이 독서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연령에 따라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 60대 이상의 절대적인 다수가 대면프로그램을 선호한 것과 비교하여, 30대와 40대에서는 대면만이 아니라 비대면도 함께 진행되는 혼합형 방식의 독서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10대, 20대, 40대, 50대가 독서 후 진행하는 후속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나, 60대 이상은 독서시작과 독서과정에 대해 지원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연령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세대별로 독서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함으로써, 향후 도서관에서는 각 연령대의 요구에 맞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보다 폭넓은 독서 문화를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 V. 결 론

독서역량의 중요성은 미래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 예측된다. 그렇기에 누구나 차별 없이 독서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 중 도서관의 독서문화프로그램은 모든 이에게 공평한 독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효과성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입증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그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독서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사항 등의 조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독서실태와 기존의 독서문화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개선점,

더불어 향후 희망하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의 유형과 방향성이 무엇인지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프로그램이 다루어야 할 독서의 범위가 확장되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조사 결과 독서에 대한 개념이 종이책을 “읽는다”는 개념을 포함하여 다양한 매체를 읽고, 듣고, 보는 것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독서문화 프로그램에서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콘텐츠를 융합한 놀이 개념의 독서문화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성인을 위한 유사한 프로그램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세대별로 상이하겠으나 매체노출의 경험과 빈도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디지털 독서 매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둘째,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과 구성에 있어 유연성이 요구된다. 조사결과에서 도서관의 독서문화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으나 운영시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향후, 이용자의 프로그램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 시간 및 운영방법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물론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다양화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 되겠으나, 현실적인 방법은 아닐 것이다. 이에 연령별·신분별 선호하는 시간대를 고려하고, 요일별로 프로그램을 분산 운영하는 등의 현실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외국의 사례처럼 유튜브와 팟캐스트를 활용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시간에 맞추어 자유롭게 독서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독서문화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 연속성에 대한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가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단발성 프로그램의 운영도 필요하겠으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하겠다.

넷째, 연령에 따라 선호하는 프로그램 진행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연령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고령자의 경우 독서 후 활동도 필요하지만 독서를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읽어 나갈 수 있도록 독서과정에 대한 지원 요구가 높았고, 독서를 통한 치유/치료에 대한 희망도 있었다. 제4차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과 제4차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는 생애주기별 북스타트운동과 독서습관 형성을 위한 지원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생애주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각 연령별로 시기별 독서문화프로그램이 단계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이용자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례조사 지역인 부산지역의 경우, 독서문화프로그램의 횟수와 예산이 전국 상위권에 속하는 곳으로 이용자의 참여도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이용자의 선호도와 프로그램의 구성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도서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의 종류와 참여 실적은 이론 중심의 강의식 수업과 대단위 프로그램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프로

그림은 참여형 프로그램이며 소규모와 중규모의 프로그램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용자의 의견이 모든 프로그램 구성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독서문화프로그램의 유용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유효한 참고자료임에는 틀림없다. 주기적인 이용자유구조사를 통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평가와 개선이 요구된다.

## 참 고 문 헌

- 감미아, 이지연 (2013). 공공도서관과 지역사회기관의 문화프로그램 비교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4), 197-215.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3.24.4.197>
- 곽철완, 안인자, 김호연, 박미영 (2009).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모형 및 운영매뉴얼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1), 197-208.
- 국가도서관위원회 (2024).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 서울: 국가도서관위원회.
- 권나현 (2015). 공공도서관 서비스 성과 평가 - 일상생활에서의 공공도서관 서비스 혜택에 대한 전국 성인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2), 169-194.  
<http://dx.doi.org/10.4275/KSLIS.2015.49.2.169>
- 기인영, 강순애 (2013). 수원시 공공도서관 초등학생 독서문화프로그램의 운영 개선을 위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4), 341-362.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3.24.4.341>
- 김관준 (2022). 국내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분야의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6(4), 51-71. <http://dx.doi.org/10.4275/KSLIS.2022.56.4.051>
- 문화체육관광부 (2023). 2023년 국민독서실태조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2024). 제4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2024-2028).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박운자 (2004). 독자자문서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2), 261-289.
- 부산도서관 (2024).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개발 연구. 부산: 부산도서관.
- 송민선, 장인호, 황금숙, 김수경 (2023). 고양시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독서실태 조사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7(1), 285-308. <http://dx.doi.org/10.4275/KSLIS.2023.57.1.285>
- 심효정 (2024). 공공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운영 현황분석 및 정책 제안.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4(4), 125-147.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3.34.4.125>
- 이경란 (2013). 공공도서관 독서마라톤 프로그램이 독서량과 도서관 이용빈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2), 97-116. <http://dx.doi.org/10.16981/kliss.44.2.201306.97>
- 이경아, 김기영 (2018).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을 통한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 탐색 - 예코 세대를 중심으로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3), 335-361.

- <http://dx.doi.org/10.4275/KSLIS.2018.52.3.335>
- 이수상, 김수빈, 김나은 (2024). 국내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의 내용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5(2), 29-53. <http://dx.doi.org/10.16981/kliss.55.2.202406.29>
- 이종문 (2016). 공공도서관의 독서프로그램 운영 실태 분석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7(2), 81-94.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6.27.2.081>
- 정미옥, 김기영 (2022). 중장년층의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이용이 도서관 인식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6(3), 181-211. <http://dx.doi.org/10.4275/KSLIS.2022.56.3.181>
- 차미경, 표순희 (2008). 공공도서관 향유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 42(4), 329-354.
- 최상희 (2020). 공공 도서관문화프로그램 유형 분석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4), 351-374. <http://dx.doi.org/10.16981/kliss.51.4.202012.351>
- 최우영 (2024. 8. 13.). 밀리의서재 2Q 영업이익 37억, 전기 대비 28%↑. 출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81315472686569>
- 한윤옥, 이연옥 (2008). 공공도서관 청소년 독서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1), 127-154.
- 황금숙, 김수경, 박미영 (2008).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현황 분석과 활성화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1), 219-244. <http://dx.doi.org/10.16981/kliss.39.1.200803.219>
- Larsen, N., Kæseler, J., & Miller, R. (2021). What Is 'Futures Literacy' and Why Is It Important? Available: <https://medium.com/copenhagen-institute-for-futures-studies/what-is-futures-literacy-and-why-is-it-important-a27f24b983d8>
- Vakkari, P. & Serola, S. (2012). Perceived outcomes of public librarie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34(2012), 37-44.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usan Metropolitan Library (2024).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Library Reading Culture Program. Busan: Busan Metropolitan Library.
- Cha, Mi-Kyeong & Pyo, Soon-Hee (2008).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njoyment indicators of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2(4), 329-354.

- Choi, Sanghe (2020). Analysis of public library programs: U.S. public libraries' practic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1(4), 351-374.  
<http://dx.doi.org/10.16981/kliss.51.4.202012.351>
- Choi, Wooyoung (2024, August 13). Millie's library Second quarter operating profit was 3.7 billion won, an increase of 28% compared to the previous quarter. Available: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81315472686569>
- Han, Yoon-Ok & Lee, Yeon-Ok (2008). A study on young adults' reading programs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2(1), 127-154.
- Hoang, Gum-Sook, Kim, Soo-Kyoung, & Park, Mi-Young (2008). A study on analysis and improvement of cultural programs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1), 219-244.  
<http://dx.doi.org/10.16981/kliss.39.1.200803.219>
- Jeong, Mi Ok & Kim, Giyeong (2022). A study on the effect of middle-aged people's use of cultural programs in public library on their library perception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6(3), 181-211. <http://dx.doi.org/10.4275/KSLIS.2022.56.3.181>
- Kam, Miah & Lee, Jee Yeon (2013). A comparative study of cultural programs offered by public libraries and other regional public service institution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4(4), 197-215.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3.24.4.197>
- Kim, Pan Jun (2022). Research trends and tasks in the field of public library program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6(4), 51-71. <http://dx.doi.org/10.4275/KSLIS.2022.56.4.051>
- Kiy, In-Young & Kang, Soon-Ae (2013). A study on improving the operation of reading culture program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public libraries in Suwon City.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4(4), 341-362.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3.24.4.341>
- Kwak, Chul-Wan, Ahn, In Ja, Kim, Ho Yeon, & Park, Mi Young (2009). A study of the model and program manual of public library cultural program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1), 197-208.
- Kwon, Nahyun (2015). A national study of perceived outcomes of public library services:

- measuring the perceived benefits of public library services among Korean adult library use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9(2), 169-194. <http://dx.doi.org/10.4275/KSLIS.2015.49.2.169>
- Lee, Geong-Ran (2013). A study on the effect of readingmaraton program of public libraryon reading volume & library use frequenc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2), 97-116. <http://dx.doi.org/10.16981/kliss.44.2.201306.97>
- Lee, Jongmoon (2016). An analysis of reading programs of public librari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7(2), 81-94.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6.27.2.081>
- Lee, KyungAh & Kim, Giyeong (2018). An exploratory study on the perceptions of public libraries through library cultural program: focused on Eco Gener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2(3), 335-361. <http://dx.doi.org/10.4275/KSLIS.2018.52.3.335>
- Lee, Soosang, Kim, Subin, & Kim, Naeun (2024). A study on content analysis of domestic public library program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5(2), 29-53. <http://dx.doi.org/10.16981/kliss.55.2.202406.29>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3). 2023 National Reading Survey. Sejong: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4). The 4th Reading Culture Promotion Basic Plan (2024-2028). Sejong: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National Library Commission (2024). The 4th Comprehensive Library Development Plan (2024-2028). Seoul: National Library Committee.
- Park, On-Za (2004). A study on readers' advisory servic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8(2), 261-289.
- Sim, Hyojung (2024). A study on the analysis of public library reading program operation status and policy proposal.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4(4), 125-147.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3.34.4.125>
- Song, Min Sun, Chang, Inho, Hoang, Gum-Sook, & Kim, Soo-Kyoung (2023). A study on reading survey for the establishment of Goyang City reading culture promotion pla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7(1), 285-308. <http://dx.doi.org/10.4275/KSLIS.2023.57.1.285>